

공무원제안서

① 제목/희망 처리 부서	겨울철 눈의 통합형 전주기 적설 예보 “우리 동네 쌓인 눈과 쌓일 눈의 합은 얼마인가요?” /예보국 재해기상대응팀		
② 제출기관			
③ 불공정, 동일· 유사 여부 등 점검	□ 기상청이 수행하는 용역사업 등에서 파생한 것이 아닌 순수한 본인의 아이디어인가? [○] □ 기상청이 이미 시행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유사한가? [×] □ 기상청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가? [×] □ 기상청의 사무에 관한 사항인가? [×] □ 단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인가? [×]		
④ 주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70	
⑤ 공동제안자	성 명	생년월일	기여도(%)
			30
⑥ 처리 상황 공개 여부	[○] 공개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⑦ 처리 결과 통보방식	[○] SMS(문자 메시지)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전자우편주소:	
	[] 우편	주소:	
「공무원 제안 규정」 제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주제안자 (서명 또는 인)			
기상청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⑧ 현황과 문제점

- (현황) 기상청은 겨울철 눈 예보에서 신(新)적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에 쌓여있는 구(舊)적설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예보 이후 최심(最深)적설의 관측 정보를 기상정보로 예보와 분리하여 제공함
- 신적설 예보에 눈의 특징(녹는 정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이 체감하는 적설 정보는 내 눈앞의 적설, 누적적설 또는 최심적설임. 예보에 관측값이 배제된 신적설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와 거리감이 있음
- 눈의 특징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제설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어려움

- 시사점 -

“관측과 예측이 모두 포함된 통합형 적설 정보 제공 필요”
 “눈의 특징(녹는 정도)를 고려하여 눈의 전주기 정보 제공 필요”
 “생산된 정보의 국민 접점 확대를 위한 예보 소통 필요”

⑨ 개선방안

- ❖ 관측과 예측을 함께 고려한 통합형 적설 정보 생산
 - ↳ (관측) 관측소별 예보 시점의 심적설 정보 활용
 - ↳ (예측) 건설·습설 등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개선된 신적설 정보 생산
 - ↳ (통합) 관측 정보+예측 정보=통합 정보 → 국민 필요 정보
- ❖ 적설 예보에 눈의 전주기(life cycle)정보 포함
 - ↳ 오래 쌓일 눈인지, 금방 녹을 눈인지 정보 제공하여 제설 계획에 기여
- ❖ 생산된 정보의 국민 접점 확대를 통한 One-Voice 적설 예보 소통
 - ↳ (언론소통) 예보브리핑 시 통합형 적설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정보 확산 기대
 - ↳ (국민소통)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채널 엠TV를 통해 시험 서비스 실시

⑩ 기대효과

- 눈 관련 자연재해 피해 절감 및 제설 효율화 기대
- 국민 예보 서비스 만족도 향상

첨부서류

1. 제안 설명서
2. 실시 계획서

제안명 : 겨울철 눈의 통합형 전주기 적설 예보

- “우리 동네 쌓인 눈과 쌓일 눈의 합은 얼마인가요?”

《국.기관명: 기상청》

발표자	
제안제목	겨울철 눈의 통합형 전주기 적설 예보 - 우리 동네 쌓인 눈과 쌓일 눈의 합은 얼마일까요?
개요	눈이 5cm 내린다고 했는데... 이미 10cm가 쌓여 있어요! 눈이 5cm 내리긴 했는데... 학교에 다녀오니 다 녹고 없어요! <u>기존 적설과 기온을 고려하여</u> <u>현실감 있는 국민 친화적 적설 예보를 하자!</u>
현황 및 문제점	<p>○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청은 겨울철 눈 예보에서 신(新)적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에 쌓여있는 구(舊)적설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예보 이후 최심(最深)적설의 관측 정보를 기상정보로 예보와 분리하여 제공함 - 신적설 예보에 눈의 특징(녹는 정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p>○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이 체감하는 적설 정보는 내 눈앞의 적설, 누적 적설 또는 최심적설임. 예보에 관측값이 배제된 신적설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와 거리감이 있음 - 눈의 특징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제설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어려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시사점 -</p> <p style="text-align: center;">“관측과 예측이 모두 포함된 통합형 적설 정보 제공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눈의 특징(녹는 정도)를 고려하여 눈의 전주기 정보 제공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생산된 정보의 국민 접점 확대를 위한 예보 소통 필요”</p> </div>
개선방안 (개선내용)	<p>○ 관측과 예측을 함께 고려한 통합형 적설 정보 생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측) 관측소별 예보 시점의 심적설 정보 활용 ↳ (예측) 건설·습설 등 수상당량비를 고려한 개선된 신적설 정보 생산 ↳ (통합) 관측 정보+예측 정보=통합 정보 ☞ 국민 필요 정보 <p>○ 적설 예보에 눈의 전주기(life cycle)정보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래 쌓일 눈인지, 금방 녹을 눈인지 정보 제공하여 제설 계획에 기여 <p>○ 생산된 정보의 국민 접점 확대를 통한 One-Voice 적설 예보 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소통) 예보브리핑 시 통합형 적설 정보를 언론에 제공 ↳ (국민소통) 유튜브 채널 엠TV를 통해 시험 서비스 실시
기대효과 (개선성과)	<p>○ 눈 관련 자연재해 피해 절감 및 제설 효율화 기대</p> <p>○ 국민 예보 서비스 만족도 향상</p>
조치사항	<p>■ 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p> <p>■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p>

제안명 : 겨울철 눈의 통합형 전주기 적설 예보

“우리 동네 쌓인 눈과 쌓일 눈의 합은 얼마인가요?”

2023. 3. 31.

소 속 직 급 성 명

1 추진 배경

눈이 5cm 내린다고 했는데... 이미 10cm가 쌓여 있어요!
눈이 5cm 내리긴 했는데... 학교에 다녀오니 다 녹고 없어요!
기존 적설과 기온을 고려하여
현실감 있는 국민 친화적 적설 예보를 하자!

- 기상청 눈 예보는 앞으로 내릴 신(新)적설을 중심이지만, 지역별 눈의 녹는 정도가 다르고 이미 눈이 쌓여있는 지역에 더 내리는 경우도 있어 국민이 체감하는 적설의 정도와는 다를 수 있음
- 눈의 녹는 정도에 큰 영향을 주는 기온과 기존에 내린 최심적설을 고려하여 국민 친화적인 관점에서의 적설 예보가 필요함

2 현황과 문제점

○ 예보 현황

- 기상청은 겨울철 눈 예보에서 신(新)적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존에 쌓여있는 구(舊)적설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며, 예보 이후 최심(最深)적설의 관측 정보를 기상정보로 예보와 분리하여 제공함
- 신적설 예보에 눈의 특징(녹는 정도)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날씨해설 제12-109호(2022년 12월 22일 16시 10분 발표)

‘22~24일까지 충청권 전라권, 제주도에 매우 많고 강한 눈이 내릴 것 예보’

강수

○ 오늘(22일)부터 모레(24일) 아침 사이 경기남서부(23일까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내륙(24일 새벽까지)에 눈이, 제주도(24일 밤까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동부, 모레 새벽까지 경북권남동부, 경남권(서부내륙 제외)에 가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 특히, 오늘(22일)과 내일(23일)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에는 강약을 반복하면서 시간당 3~5cm 내외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 예상 적설(22~24일)

- 충남서해안, 전라권(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제주도중산간, 제주도산지, 울릉도, 독도: 10~25cm(많은 곳 전북, 전남권서부, 제주도중산간 30cm, 제주도산지 50cm 이상)
- 충남권내륙, 충북중.남부, 제주도(중산간, 산지 제외): 5~15cm
- 전남동부남해안, 경상서부내륙, (22~23일) 서해5도: 3~10cm
- (22~23일) 경기남서부, 충북북부: 1~5cm
-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동부, 경북권남동부, 경남권(서부내륙 제외): 0.1cm 미만 눈 날림

기상정보 제12-999호(2022년 12월 23일 17시 40분 발표)

‘충청권, 전라권 등 지역 23일 누적적설 관측값 예보와 별도로 제공’

* 주요지점 적설 현황(23일 17시 현재, 단위: cm)

- 충청권: 서천 28.9 세종전역의 19.2 천안 14.9 위성센터(진천) 12.5 충주 8.3 청주 8.2 대전 0.8
- 전라권: 북흥(순창) 63.5 강진면(임실) 52.8 정읍 41.8 광주 39.0 장성 33.5 화순 29.1
- 경상권: 울릉도 23.0 서하(함양) 6.6 김천 3.9 북상(거창) 3.4
- 제주도: 사제비(산지) 86.8 삼각봉(산지) 71.5 어리목(산지) 52.6 제주가시리(서귀포) 31.6 서귀포 1.3 제주 0.5

○ 문제점 및 시사점

오늘 예보된 적설이 5cm다. 그런데 어제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내 이미 40cm가 쌓여있는 경우 국민이 공감하는 적설은 5cm인가 45cm인가?

- 언론 보도를 보면 국민이 체감하는 적설 정보는 내 눈앞의 적설, 누적적설 또는 최심적설임. 예보에 관측값이 배제된 신적설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수요자가 원하는 정보와 거리감이 있음

<div><h1>사흘간 쌓인 눈만 40cm... '역대급 눈폭탄' 광주·전남</h1><div><div>채선희 기자 ☆</div><div>입력 2022.12.24 15:49 수정 2022.12.24 15:52</div></div><div><div>가</div><div>가</div></div><div><p>신적설량도 역대급...교통사고 낙상 신고 잇따라 당분간 눈 예보 없지만...북극 한파 몰아쳐</p></div></div>	<div><p>그야말로 역대급 눈폭탄이었다. 광주전남 지역은 1939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많은 눈이 쏟아지며 눈길 사고와 피해가 이어졌다. 사흘간 쏟아진 눈에 일부 지역은 현재까지도 교통통제가 지속되고 있다.</p><p>24일 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관측을 시작한 1939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많은 눈이 내렸다. 역대 1위는 2008년 1월 1일 41.9cm, 2위는 2005년 12월 22일 40.5cm였다.</p><p>하루 동안 내려 쌓인 눈을 의미하는 신적설량도 역대급 기록을 경신했다. 23일 하루 동안 광주에 32.9cm가 내리면서 40.5cm가 내린 2005년 12월 22일에 이어 역대 2번째 많은 양을 기록했다. 눈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를 의미하는 최심 적설량은 40cm를 기록했다.</p></div>	
<div><h2>한라산에만 누적 77cm 폭설, 강풍 더해지며 제주섬은 고립</h2><div><div>공고원상 기자 송인 2022.12.23 09:29</div><div>댓글 0</div></div></div>	<div><div>문화일보</div><div>PICK ①</div><div>17년만의 '60cm 폭설' 전북 등 호남 피해 속출...피해는 피해대로, 가뭄 해갈에는 부족</div><div>입력 2022.12.24, 오후 2:43 · 수정 2022.12.24, 오후 6:25</div><div> 이민중 기자</div></div>	<div><div>news 1</div><div>'최대 40cm' 기록적 폭설은 그쳤지만...광주·전남 큰 피해, 수습 총력</div><div>입력 2022.12.24, 오후 5:33 · 수정 2022.12.24, 오후 5:34</div><div> 김동수 기자</div><div><div><div> 3</div><div> 12</div></div><div><div>  </div><div>가</div></div></div><div><div>광주 '최심 적설량' 역대 3위...전남 지역도 36cm 눈 폭탄</div></div></div>

- 눈의 특징(녹는 정도 등)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 제설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어려움

<p>"같은 북강릉인데"...한과마을은 '설국' 주문진 수산시장 '멸정' 왜?</p> <p>산지·내륙은 제설 총력전...강릉 해안가 '눈 조금 섞인 비 정도'</p> <p>동해안 기온 영상권 안팎 따뜻...해수면 온도 10~12도로 높은 영향</p> <p>(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2023-01-15 14:48 송고</p>	<p>하지만, 27일 오전 3시부터 눈발이 날리기 시작 낮 12시 신적설량 5.8cm를 기록했다. 따라서 최근 올름도에 내린 눈은 총 83.1cm다.</p> <p>그러나 기상관측자료에 따르면 25일 오후 1시 누적적설량 76.5cm를 정점으로 낮아지기 시작 이날 밤 12시 70.7cm로 내리는 눈보다 녹는 속도가 빨랐다.</p> <p>또 26일은 오전 1시 70.5cm, 낮 12시 기준으로 적설량이 66.2cm 낮아졌고, 이날 밤 12시 60.8cm, 27일 오전 1시 60.7cm 낮아졌다가 낮 12시에 66.3cm로 다소 높아졌다.</p>
---	---

시사점

“관측과 예측이 모두 포함된 **통합형 적설 정보** 제공 필요”

“눈의 특징(녹는 정도)를 고려하여 **눈의 전주기 정보** 제공 필요”

“생산된 정보의 국민 접점 확대를 위한 **예보 소통** 필요”

3 개선 방향과 내용

통합형 적설 정보로 국민과 소통한다

❖ 관측과 예측을 함께 고려한 통합형 적설 정보 생산

- ↳ (관측) 관측소별 예보 시점의 심적설 정보 활용
- ↳ (예측) 건설·습설 등 수량당량비를 고려한 개선된 신적설 정보 생산
- ↳ (통합) 관측 정보+예측 정보=통합 정보 → 국민 필요 정보

❖ 적설 예보에 눈의 전주기(life cycle)정보 포함

- ↳ 오래 쌓일 눈인지, 금방 녹을 눈인지 정보 제공하여 제설 계획에 기여

❖ 생산된 정보의 국민 접점 확대를 통한 One-Voice 적설 예보 소통

- ↳ (언론소통) 예보브리핑 시 통합형 적설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여 정보 확산 기대
- ↳ (국민소통)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채널 앱TV를 통해 시험 서비스 실시

① 관측과 예측을 함께 고려한 통합형 적설 정보 생산

○ (관측) 정보 제공 시점 주요 관측소별 적설 집계표 활용

[적설 집계표] 2022. 1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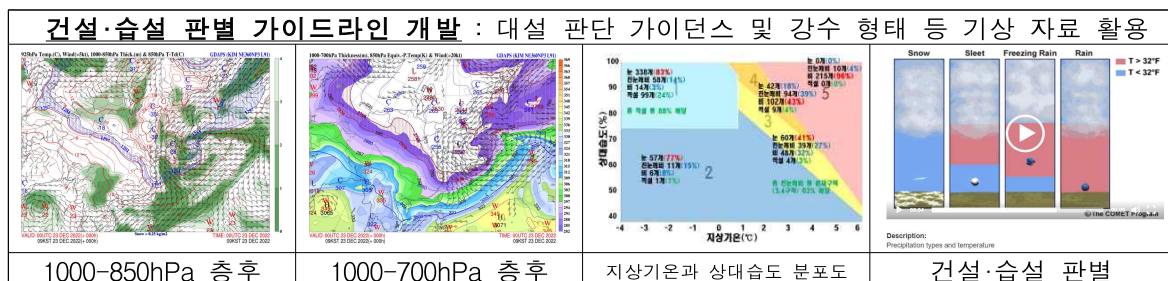
지점	01시	02시	03시	04시	05시	06시	07시	08시	0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22시	23시	24시
충주	8.8	8.8	8.8	8.8	8.8	8.8	8.8	8.8	8.6	8.6	8.5	8.3	8.3	8.3	8.3	8.3	8.3	8.3	8.3	8.3	8.3	8.3	8.3	8.3
서산	2.5	2.4	2.4	2.3	2.2	2.2	2.2	2.2	2.1	2.1	2.0	2.0	2.0	1.8	1.9	1.9	1.9	1.9	1.9	1.9	1.9	2.0	2.1	2.9
대전	0.9	0.9	0.9	0.9	0.9	0.9	0.9	0.9	0.9	0.8	0.8	0.7	0.6	0.5	0.3	0.5	0.8	0.8	0.8	1.0	1.2	2.2	2.3	2.1
홍성	3.7	3.5	3.2	3.1	2.0	2.0	2.2	2.2	2.0	2.0	2.1	2.2	2.2	2.0	2.0	1.9	2.1	2.2	2.2	2.2	2.4	2.4	3.7	5.2
천안	7.2	7.3	7.5	7.5	7.4	7.4	7.6	7.6	7.5	7.5	7.4	6.8	6.6	6.6	9.7	13.1	14.9	18.5	19.1	18.3	17.8	17.2	16.8	16.4
보령	8.6	8.2	8.0	7.8	7.9	8.2	7.8	7.4	7.1	6.7	6.3	6.0	5.8	5.8	5.6	5.7	6.5	6.6	7.1	6.9	6.9	6.9	7.5	7.6
군산	15.3	17.6	20.0	24.1	27.5	28.4	27.5	26.3	25.4	24.4	23.4	22.5	22.0	23.0	23.8	23.5	22.5	23.8	25.4					24.3
전주	9.9	10.0	10.5	12.3	13.8	14.3	14.4	14.0	13.6	13.3	13.4	13.4	13.2	13.4	13.1	13.4	13.8	13.8	14.3	15.5	15.6	14.6	14.0	
고창	1.9	1.9	1.8	1.9	1.9	2.1	3.0	3.3	3.3	3.4	3.6	3.6	3.1	3.4	3.8	6.3	7.0	5.8	5.6	5.5	5.2	6.5	6.8	6.9
정읍	26.0	28.7	28.1	28.4	29.6	28.5	27.9	27.4	32.7	33.8	35.7	39.7	43.1	45.0	44.7	43.1	41.8	40.9	40.0	39.7	41.9	44.7	45.2	45.6
남원	12.1	12.1	12.6	13.6	14.8	15.6	16.1	15.8	15.5	15.0	14.8	14.3	14.0	13.3	12.8	12.6	12.6	12.8	13.8	14.3	15.3	16.0	15.6	15.8
광주	9.8	9.6	9.4	12.0	14.0	17.3	19.3	21.8	22.7	26.5	27.9	28.9	29.4	30.7	32.8	38.8	39.0	40.0	39.0	38.7	39.0	39.5	39.8	40.0
목포	4.0	3.9	3.7	3.7	3.6	3.6	3.8	3.8	3.9	3.9	4.0	3.8	3.9	4.0	4.1	4.1	4.2	4.2	4.2	4.2	4.3	4.4	4.4	4.4
흑산도	0.4	0.3	0.3	0.3	0.2	0.2	0.2	0.0	0.0	0.0	0.3	1.3	2.3	2.3	2.0	1.8	1.5	1.5	1.5	1.5	1.5	1.5	1.5	1.5
완도	7.6	7.2	7.0	7.0	6.7	6.8	6.9	6.7	6.9	7.1	8.0	7.7	7.2	6.7	6.2	5.8	6.5	7.2	7.1	6.8	6.6	6.7	6.6	7.1
여수	0.4	0.4	0.4	0.4	0.4	0.4	0.5	0.7	1.5	1.7	1.3	1.0	0.3											
순천	9.0	9.0	11.2	12.7	13.6	14.1	15.0	15.9	17.1	16.6	16.5	16.1	15.8	15.1	14.5	14.1	13.6	12.9	12.5	12.2	11.9	11.5	11.2	
제주	0.7	1.0	1.0	1.0	1.0	1.4	1.3	1.4	2.0	2.0	2.0	1.6	1.3	1.0	0.5	0.5	0.5	0.5	0.5	0.6	0.5	0.5	0.5	
고산	1.4	1.3	1.4	1.3	1.3	1.3	1.3	1.4	1.1	1.0	1.2	1.2	1.0	1.0	0.9	1.3	1.1	1.0	0.5	1.0	1.0	0.8	0.7	0.6
서귀포	2.6	3.0	3.6	3.7	3.6	3.8	3.9	3.8	3.7	4.0	4.1	3.5	2.8	2.1	1.2	1.4	1.2	1.5	1.8	2.0	2.0	1.9	2.0	2.1

2022년 12월 23일 적설 집계표 중 일부 발췌

○ (예측) 눈의 특징을 포함한 신적설 정보 개선

- 상세 강설정보(눈의 무게) 제공 정책과 연계* 및 구역별 건설·습설 판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다 개선된 신적설 정보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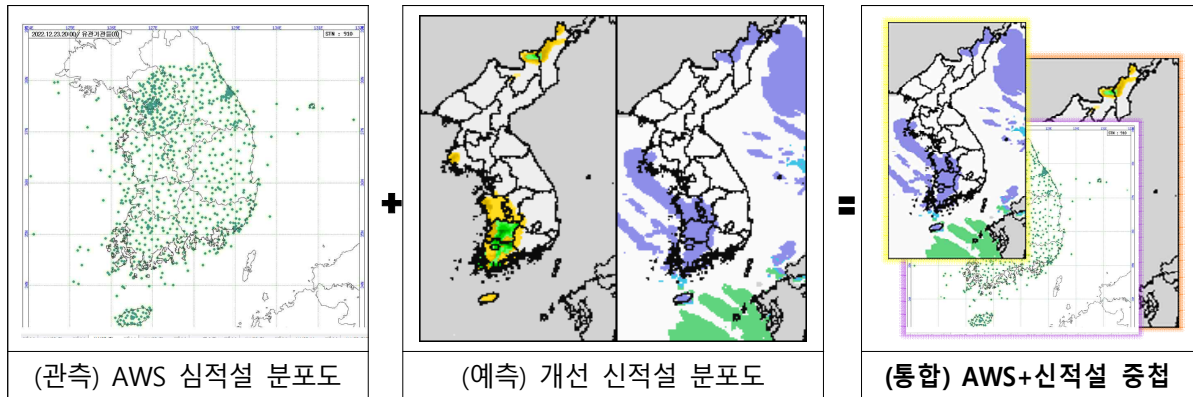
* 1~3단계(무거운 눈, 평균적인 눈, 가벼운 눈)의 강설정보 제공(23.12.)



○ (통합) 관측 정보+예측 정보 = 통합 적설 정보 생산

22년 12월 23일 16시 10분 사례 예시 (대표 지점: 광주)	
기존 적설 예보(AS-IS)	통합 적설 예보(TO-BE)
<p>예상적설(23~24일)</p> <p>- 광주 : 5~10cm(많은 곳 15cm 이상)</p>	<p>통합적설(24일까지)</p> <p>- 광주 : 45~50cm(16시 기준 심적설 38.8c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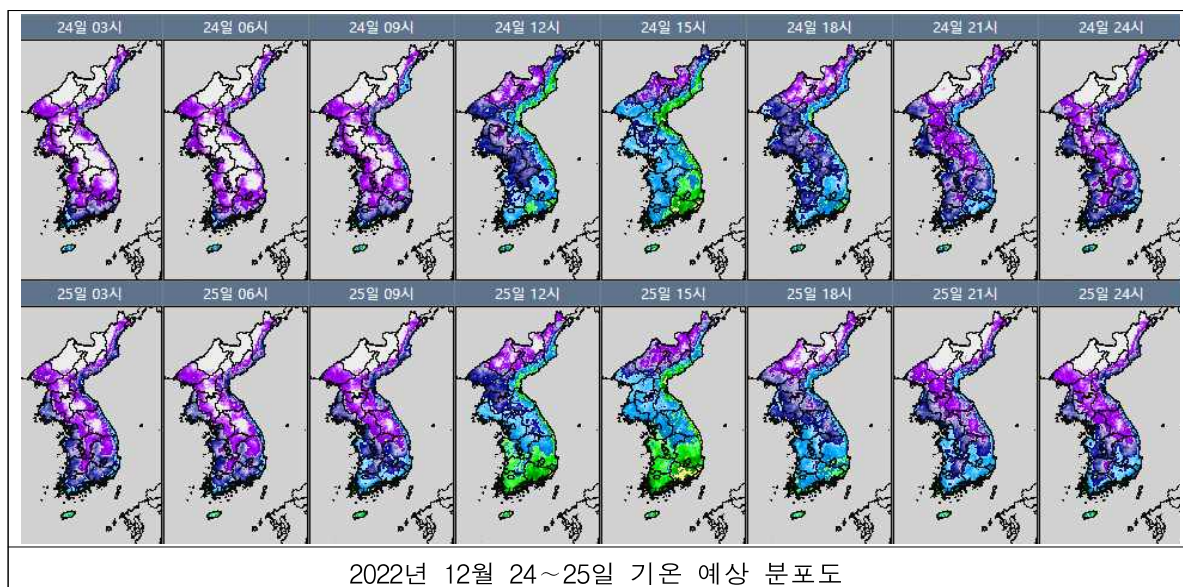
< 분포도 표출 방안 >



② 적설 예보에 눈의 전주기(life cycle) 정보 포함

○ 지역별 환경 및 예상 기온을 고려하여 향후 신적설의 상태(녹는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눈의 전주기 정보 포함

- 예시: 강원동해안은 24일부터 낮기온이 영상을 보이며 내린 눈이 빠르게 녹을 것으로 예상됨



③ 생산된 정보의 국민 접점 확대를 위한 소통 강화

- 언론브리핑 시 지역별 총 누적적설 및 예상 최심적설 정보 제공
 - 브리핑 시 중요한 대표 지역을 선정하여 통합 적설 정보 안내
 - 누적적설 또는 최심적설 관련 언론의 One-Voice 보도 유도



- 예보 소통 전문 유튜브 채널 엽TV 활용하여 서비스 테스트
 - 대표 지역의 심적설 및 예상 적설 관련 정보 콘텐츠 제작
 - 위험기상 예상 시 통합 적설 정보가 담긴 라이브 방송 진행



4 기대 효과

정량적 기대효과

눈 관련 자연재해 피해 절감 및 제설 효율화 기대

- 우리나라 대설 관련 자연재해 피해액(3,454,896천 원) 중 약 70%에 해당하는 비닐하우스 붕괴 피해액(2,356,680천 원) 절감 기대(2021년 재해연보 기준)
 - 눈의 특징(무게 및 눈의 녹는 정도 등)이 포함된 통합 적설 예보는 특히 비닐하우스 붕괴 및 사전 예측에 기여
- 제설 작업의 효율화를 통한 복구비용 절감 기대
 - 눈이 빠르게 녹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제설 작업 자원을 눈이 녹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배분함으로써 총 제설 비용 절감 가능

<p>광주지역 20cm 넘는 폭설... 민·관·군 제설 총출동</p> <p>▲ 이미지 © 입력 2022.12.23 19:44 댓글 0</p> <p>가 가</p>	<p>기록적 폭설 전복에... 강원도 '괴물' 제설차, 500km 달려왔다</p> <p>최혜승 기자 입력 2022.12.25. 12:29</p> 	<p>강원 '산타' 제설차, 전북 '눈폭탄' 구하러 수백km 달려갔다</p> <p>오윤주 기자 +구독 등록 2022-12-25 13:22 수정 2022-12-25 18:12</p> <p>가*</p> 
--	---	---

정성적 기대효과

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 현실감 있는 적설 예보를 통한 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기대
 - 국민은 많은 눈이 내릴 경우 눈앞의 적설 현황에 집중함(인터뷰 사례 참조)
 - 심적설과 신적설을 고려한 통합 적설 예보가 많은 눈의 상황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


많은 눈 발생 시 국민 인터뷰 사례

"출근하지 못하고 눈을 치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눈이 성인 기준 가슴까지 오죠."
 "눈이 젖어서 (눈삽이) 잘 밀리지 않아서 많이 힘듭니다."
 "저번에도 많이 와서 힘들었는데 오늘도 많이 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치우는 거나 오는 거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치우면 금방 쌓이고 치우면 금방 쌓이고."

▽

"현재의 적설 상태에 집중"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

(제5조 관련)

제안자	기여도(%)	업무분담내용

[별지 제3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제목 (제안자)	겨울철 눈의 통합형 전주기 적설 예보 “우리 동네 쌓인 눈과 쌓일 눈의 합은 얼마인가요?”
제안 처리부서 (국/소속기관명-부서명)	예보국 재해기상대응팀
실시자	
실시 예정시기	’23년 12월
실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측과 예보정보를 통합한 관측소 기준 통합 적설 예측 정보 시험 생산- 유튜브채널 오피TV를 활용한 테스트 서비스 후 만족도 조사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눈 관련 자연재해 피해 절감 및 제설 대응 효율화- 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적설 관측 현황 파악을 위해 신적설-심적설 사이의 관계식 산출을 위한 R/D 연계 가능 여부 검토